제 57 호
성 가정 주일
1973. 12.30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함 승 천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강 론】

성 가정 주일

(누가2 : 41~52)

김 영 일 신부

신약시대에 있어서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준 것은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거룩하고 모범적인 가정이었읍니다. 이 세분은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서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협조하는 생활이었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가족제도를 중심으로하여 발전되었기때문에 효도는 모든 덕에 앞서 최대의 윤리행위로 규정 되어있읍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발전함과 동시에 서구문물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물질만능주의로 흐르는 시대에서는 조상숭배와 부모의 명에 무조건 순응하는 전통에 사로잡혀서도 안되지만 현대사조에 휩쓸려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가정을 꾸려나가도록 되어야겠읍니다. 더욱이 우리 신자들 가정에서는 성가정을 모법으로 삼는, 즉 사랑과 존경과 이해와 협력과 봉사로써 형성되어야하며 평화하고도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겠읍니다. 이상과 같은 가정이 되기위해서는 선결문제가 있어야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당신이 이 세상에 나려오실때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마음 착한이에게 평화함"이라고 했읍니다. 시인 비르질리우스는 "아기야 웃음지어 엄마를 알아보렴"하고 읊었읍니다. 평안한 마음의 표시가 바로 웃음입니다. 이 웃음은 다른 아무에게도 없고 오직 사람에게만 있기 때문에 사람을 정의해서 "웃는게 사람"이라고 합니다. 보통으로 가장이나 어머니가 자녀들이 자기할 본분을 게을리하거나 서로서로의 관심이 없을때에 마음의 평화를 잃게되고 미소없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바오로 종도께서도 골로사이인들에게 보낸 서한을 보면 "아내된 사람들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할 본분입니다. 남편된 사람들도 자기 아내를 사랑하십시요. 아내를 모질게 대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요. 그래야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읍니다. 어버이들은 자녀들을 못살게 굴지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어서는 안됩니다". (골로 3 : 18-21) 한 가정의 권위는 마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같이 언제나 권위로써 행사하는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과 봉사로써 충만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역시 시대의 조류와 연령에 따라 사랑과 봉사도 변해가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 시대의 모랄과 관습이 다소간 변해가기 때문입니다. 요즈음 젊은이들 가운데 "세대의 차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얼마후에는 후배들에게서 같은 소리를 듣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녀들이 잊어서 안될 점은 자기들도 가정의 한 멤버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한 가정의 단체에서 가정의 일원중 하나가 "세대차"라는 이유로 합의가 안된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심을 크게 그르치는 일이 됩니다. (서학동 주임 신부)

※이주일의 미사 ※

1.개회식

□**입당송** 목자들이 달려가 보니, 과연 구유에 누운 아기와 마리아와 요셉이 있더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집회 3 : 3-7, 14-17, 경향잡지 12월호 P.44)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부모를 공경한다.

□**층계송**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길을 걷는 이는 모두 복되도다.

너의 집 안 방에는 네 아내가 마치도 열매 푸진 포도나무인듯, 너의 상 둘레에는 네 자식들이 마치도 올리브의 햇순들 같도다. ◎

□**제2독서** (골로사이 3 : 12-21, 성서 P.460)
주님과 함께 사는 가정 생활.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는 너희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 풍부히 너희 안에 계시리라. 알렐루야.

□**복음** (루가 2 : 41-52, 성서 P.128)
부모들이 박사들 가운데 계신 예수를 찾았다.

□**신자들의 기도**

1.주여, 이 해도 다 저물었읍니다. 한 해 동안 당신께 받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2.주여, 세계가 온통 난리 속입니다. 이렇게 어지러운 때에 선포된 성년의 참뜻을 우리들이 먼저 실천하여 화해의 일치를 이루게 하시어 세계의 모든 위정자들로 하여금 성년의 뜻을 잘알아 듣고 실천하게 인도하소서. ◎

3,주여 한국도 기억해주소서, 정의와 진리를 목터지게 외친 소리없는 함성이 메아리없이 사라지지 말게 하소서 +, 진리의 성신이여, 성년인 지금 이 사회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의로운 사람들에게 용기와 당신의 위로를 충만히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성탄 감사송**

□**영성체송** 우리 하느님이 땅에 나타나시고 사람들과 함께 계시도다.

4. **폐회식**

※ 숲정이 산책 ※

연말 연시는 가족과 함께

□대화의 광장□

젊은 학생들이여

문 정 현 신부

젊은 학생들이여,

12월 23일 (대림 제4 주일)오후 2시에 해성학교의 한 다락방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들에게 전한다.

진주, 히야친스, 천공, 비둘기. 에인젤 (Angel), 숲정이, 클로버, 글로리아. 샛별, 성모, 엠마누엘, 기전, 에루알…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수년 동안 겪어온 역사(歷史)의 흉금을 털어 버렸다. 그들은 자신들의 참된 상태를 재발견 (再發見), 자신들의 허약성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존엄성도 깨달았다.

다락방의 분위기는 엄숙하였다. 자신들의 허약성을 토(吐)할 때에는 실망의 그림자가 어두웁게 우리를 짓눌렀으나, 자신들의 존엄성을 새로이 인식했을 때에는 희망으로 벅찼었다.

그들은 그들의 본성이 〈사회적 존재〉라는 점에서 적어도 같은 뜻을 품은 다른 쎌 (Cell) 들과 연관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그들의 자질(資質)조차 발휘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달리 말해서 그들은 다른 쎌들과의 교제, 상호 봉사, 형제적 대화등을 통하여 자기 쎌의 능력에 상응(相應)한 발전을 이룩하고, 불린 목적에 응답하여 보다 나은 공동체를 이룩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토록 엄숙했던 다락방은 그들의 잡다한 역사 속에서 그들의 요구와 염원을 체험하고, 새역사를 창조하려는 희망 끝에 하나의 **모임**을 그리스도의 성탄절과 함께 탄생시켰다.

대상…각 쎌 지도자 및 의장
일시…매월 첫 주일 오후 2시
(※본인의 개인 사정으로 74년 1월 모임은 둘째 주일 (13일)로 미룸)
장소…해성 학교 종교감실. (전화②4958)

물론 그들 자신이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요구와 새로운 염원을 체험할 것인즉 이 움직임이 완전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겠다. 오직 그들 168명 회원들에게 희망이 있는 한, 세상에 충만하신 하느님의 성신이 임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장래에 충만한 가능성을 지닌 피끓는 **젊은 학생들이여!** 당신들은 육체적 성장과 더불어 많은 지식을 얻고, 사회의 부조리를 예민하게 꼬집고, 누구보다도 강한 반응을 보이는 힘을 가졌다.

여기 그들의 〈뜻〉과 합하여 하나의 밀알이 되지 않으려는가!?

뜻이 있는 학생이나 젊은 지성인들이여, 각 본당 쎌 회원이나 본당 신부님을 접촉하시오. 친절한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전주 교구 중고등 학생 지도 신부)

□학 생 회□

우리가 해야 할 일

육 경 수(아가비도)

하느님,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애오라지 한 가닥의 간절한 소망을 기도드립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학생회 활동은 침체일로에 있고, 또한 교회 어른님 및 일부 학생들의 관심에서 까지 벗어나고 말았읍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회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할 학생들의 모임이기에 우리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해야 하겠으며, 나아가서는 이 모임을 더욱 더 발전시켜야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회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 두가지를 찾아 보았읍니다.

그 하나는 우리 학생들 내적인 문제로, 그것은 바로 우리들 학생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영신생활과 확고부동한 크리스챤 정신의 결여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울러 그 영신생활과 크리스챤 정신을 학생활동에 반영할만한 마음의 자세 및 능력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여러 어른들의 무관심(?)이 커다란 문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할 수 있겠읍니다. 우리들은 곧잘 내일의 일꾼인 학생들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강력한 뒷받침, 성의있는 지도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찌된 일인지, 외면되어 버리는 그 무관심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해야 하겠읍니다.

건강한 영신생활을 위해서는 하느님의 말씀에 귀기우리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되겠읍니다. 틈나는대로 성경을 읽어야 하겠지요. 크리스챤 정신을 더 굳게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토론해야 하겠읍니다. 학생회의 바람직한 좌표 설정을 위해서 선생님들과 어른님들과의 대화의 광장도 마련해야 하겠읍니다. 이를 등한히 할 때,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젊은이들 입니다. 우리들은 배우는 학생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할 수 있읍니다. 오직 우리들의 각오와 노력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은 어른님들의 강력한 뒷받침과 채찍질, 성의있으신 지도력이라고 외람되게 말씀드릴 수 있겠읍니다. 저희들은 어리기 때문에 너무나 자주 잘못할 수 있읍니다. 이럴 때마다 준엄하고도 따뜻하게 가르쳐주셔야 하겠읍니다. "또 그랬구나"하고 외면하실때에 저희들과 어른님들과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공간이 생길 따름입니다.

친구들이여, 인색하고 늙은 젊은이가 되지 맙시다.

어른님들이시여, 잘 지켜보아 주십시오.

(전주 고등학교 학생)

조흥(사자표)페인트 대리점
(집칠 전문)
대동페인트상사 { 고급벽지 / 비닐장판 / 하드보드 / 각종페인트 }
● 동문 사거리 전화② 5986
임 정 원 (도민고)

선물용 케익과 빵, 과자, 찹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임 금 님 찻집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③5011 찻집 ②5013
김 원 준(야고버)

※ 최신형 드레스 및 신부화장 ※
결혼 미용실
교우 여러분께 반액 봉사
● 중앙성당 앞
전화 ② 6794
이 현 주(데레사) 올림

□양 지 쪽■

반액 대매출

지난 주일 밤, 텔레비젼을 시청하다가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나만 그런줄 알았더니, 그 방안에 있던 모두가 그러했다. 범죄 실화를 드라마로 엮은 수사반장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이었다.—어린 누이동생의 졸업 앨범대금 단돈 1,500원을 구하려고 모의 수류탄으로 은행을 털고, 다방을 점거해서 인질 소동을 벌인 사건을 그린 사회 고발극이었다. —

착하게 살려고 무진 애를 쓰는 주인공은 아픈 몸을 이끌고 할 짓은 다 해보았다. 피도 팔아보고, 다방을 찾아다니며 볼펜도 팔았다. 막벌이를 하는 아버지를 도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보았지만, 살 길은 막연하기만 했다. 그러한 그는 앨범대금을 못내면 졸업을 할 수 없다는 6학년짜리 누이동생의 애절한 철부지 하소연을 외면할 수가 없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 사람은 정말로 죄인인가? 누가 그 사람을 죄로 판단할 수 있는가? 수사관의 독백마냥, 2억을 통째로 집어먹어도 끄떡없이 지내는 사람도 있는데,참으로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죄할 수 있는가?냉혹한 인정을 숨쉬며 부조리로 혼탁한 현실과 타협하며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연말이나 명절이 닥치면 의례껏 연중행사로 등장하는 정규 프로그램이 하나 있다. 〈××경품부 반액 대매출〉이니 〈××바겐세일〉이니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대개 이러한 일들은 경제적으로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은 시기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것 같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 사회에서 〈대매출〉 해버려야 할 것들이 많은 것 같다. 앞에서 소개한 그런 일들이 다시는 없도록 말이다. 지금은 불합리하고 부조리한 사회풍조들을 반액 아닌 무료로 해서 싹 쓸어 없애야 할 때인 것 같다. 이것이 바로 성년의 참뜻이 아닌가 한다.

그 혼한 망년회와 송년회를 가지면서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우리들 안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부정에 어떻게 새옷을 입혀 단장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있는가? 사회정의와 윤리의 불경기로 고심하는 이 때야 말로,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사회풍조를 〈반액 대매출〉 아닌 〈무료 대매출〉 해야 할 때이다. 우선 우리들 안에서부터 말이다. 이것이 바로 평화의 길이다. 〈P〉

요십이 (24) 김병오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관장 신부 박 진량, 총무 안 지은, 전화 ②3498)

1 (화) 11시……신년 하례식 (4면참조)
1 (화) ~3 (목) ……연시 피정 (4면참조)
3 (목) 7시반…… "목요일 밤에" (남 녀 젊은이들의 대화)
4 (금) 8시……레크레이션 (주최 ; 가톨릭 센터와 J.O.C.)
외국 문화 교실 English Conversation……월~금요일 7시

책은 바른 신앙을 기르는 양식이요. 매개체다.
성 바오로 서원

✻ 이 주간의 성경 ✻

3(월) 독서 (요한 1서 2 : 18—21, 성서 P.544)
복음 (요 한 1 : 1—18, 성서 P.202)
1(화) ◎천주의 모친 마리아 대축일(평화의 날)
독서 (갈라디아 4 : 4— 7, 성서 P.432)
복음 (루 가 2 : 16—21, 성서 P.127)
2(수) ◎성바실리오와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독서 (에페소 4 : 1—7,11—13, 성서 P441)
복음 (마태오 23 : 8—12, 성서 P.55)
3(목) 독서 (요한 1서 2 : 29— 3 : 6, 성서 P.545)
복음 (요 한 1 : 29—34, 성서 P.203)
4(금) 독서 (요한 1서 3 : 7—10, 성서 P.546)
복음 (요 한 1 : 35—42, 성서 P.204)
5(토) 독서 (요한1서 3 : 11—21, 성서 P.546)
복음 (요 한 1 : 43—51, 성서 P.204)

제일 비싼 독일의 3년 연속 V.A. 번식 성적 1위인 관토호의 직자
랙스 V 래토프

(임한전 애견)
문의처 : 전화 ②7692(진북동 어은골)

축 발 전
한진 용달 주식회사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순화동 207
전화 ㉔ 4676번
대표 송바오로 동균

✻ 단 교우 월부 판매 ✻
동 남 샤 프 {T V 냉장고 석유스토브
● 전주극장 동편 입구
전화 ② 8121
여 요 셉(운창)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평화의 날** (1월 1일)
화해와 평화의 성년인 이때에 평화의 날을 뜻있게 보냅시다.
교구청 공문을 참조하시어 본당 나름대로의 행사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

2. **새해 인사** (1월 1일 11시, 가톨릭 센타)
성년 제2차 년도를 맞이하는 새해를 당해서 뜻있는 교우들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식】

주교님을 모시고 성직자, 수도자, 평신자들이 자리를 같이 해서 우정을 두터이 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는 이 모임에 시간이 허락 하시는대로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인사가 끝난 후 간단한 다과회가 있겠읍니다. (회비 500원)

3. **가톨릭 센타 영시 피정**(1월 1일 오후 4시~3일 점심) 회비…센타회원 (2,000원), 비 회원(3,000원)
특별히 남녀 젊은이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전화 전주 ②3498)
※참가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참가비가 없어서 곤란하신 분은 센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중앙)

전화 ②2651 ②3874
주임 신부 안 복 진
사도 회장 이 복 석

1.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공식 미사 후)
2. **성심 부녀회** (1월 4일 〈금〉 어머니 미사 후)
3. **피정 안내**
① 젊은이들을 위한 피정 (1월 1일~3일)
피정비 3,000원중 본당 보조 1,500원(20명선착순)
②중·고등학생들을 위한 피정 (1월 7일~8일)
피정비 900원중 본당 보조 600원(100명 선착순)
③일반 교우를 위한 피정(1월 14일~17일-1일씩)
피정비 200원 (구역회장, 반회장께 신청바람)
4. **감사드립니다.**
교회 운영을 위해 교무금 주일금등 제반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교무금 신입액 3,117,4450원 (99%, 684세대)
성탄 특별 헌금 77,869원
지난 주일 봉헌금 42,240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 승 천
사도 회장 조 해 형

1. **사도회 월례회** (오늘 10시 미사 후)
2. **주일 학교 및 재속 형제회 주회 방학**(2월 2일 부터 시작)
3. **합동 가정 미사** (내일 밤 7시)
4. **교무금을 분납제로**
교무금 분납제를 철저히 지키시어 교구비 완납합시다
□성탄 특별 헌금 92,98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6,130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 종 택
사도 회장 김 종 환

1. **평화의 날 강연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2. **신용 조합 임원회** (다음 주일 공식미사 후)
3. **교육부 성탄 선물을 6명 학생에게**
①교리 교사 구두닦이 성금 1,750원
②학생회 구두닦이 성금 2,000원 노트60권, 연필 6타스
4. **사회부 성탄 선물은 신금동씨에게**
현금 5,000원, 백미 1말
5. **성모상 마련에 협조하신 분**
엄 병순 (치명자의 모후 P.) 하늘의 문 P.
동신자의 모후P.
◇ 축 결혼 ◇ (1월 3일 11시 반)
신랑 송기룡군과 신부 이영희양
□성탄 특별 헌금 13, 806원
지난 주일 봉헌금 7, 460원, 감사합니다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 기 순
사도 회장 조 성 호

1. **교형 자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도회 운영과 성탄 행사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부녀부 송년 월례 정기회** (오늘 공식미사 후)
3. **L.M.연총 친목회** (1일 오전 10시, 전동 성당)
단원과 협조 단원은 도시락과 석유 난로를 지참합시다
4. **성탄 판공 성사를 속히 봅시다.** (사무실에 문의 바람)
5. **성탄 영세자** (성월 20명, 유아 10명) 께 축하드립시다. 착하고 열심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기도합시다
□성탄 특별 헌금 32, 220원, 말 구유 성금 4, 944원
지난 주일 성미 3말 (누계 233말 3되)
지난 주일 봉헌금 16, 63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 영 일
사도 회장 이 거 영

1. **사도회 월례회** (다음 주일 저녁 미사 후)
2. **신용 조합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 후)
3. **L.M.연총 친목회** (1월 1일 10시반, 전동 유치원)
4. **연말 재정 보고** (12월 29일 현재)
봉헌금 총수입 780, 152원
교구비 납입 금액 321, 000원
◇ 축 결혼 ◇ (1월 1일 11시 반)
□신랑 김 성근군과 신부 탁 송자양
□성탄 특별 헌금 25, 050원
지난 주일 봉헌금 13, 096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 석 규
사도 회장 송 재 진

1. **L.M.연총 친목회** (1월 1일 10시반, 유치원)
2. **교리반 및 학생회 방학**
□교무금 신입 형황 2, 738, 100원 (496세대)
성탄 특별 헌금 75, 299원, 구유성금 7, 54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8, 286원,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 하여
교구내 모든 가정에 평화의 은총이 충만하시기 빕니다. 1974년 새해 아침
천주교 전주 교구장 **김 재 덕** 주교

알 림
〈퀴즈놀이〉 정답및 당첨자 발표는 지면관계상 1월 6일자에 합니다.
-숲정이 편집실-

* 역전 보광 출판사 인쇄 *